

되었던 것이다.

遺蹟은 北쪽 海岸의 남떨어지 위치에 있고 있었으나 두군데서 그 존재를 確認할 수 있었다(略圖參照)。그 중 A地點은 約十五米 높이의 斷崖 위에 흰 斷面을 露出시키고 있었으며, 主로 甌(牡蠣) 정갈로 形成된 純貝層의 厚는 三〇cm에서 九〇cm에 이르는 두꺼운 層을 이루고 있었다.

루고 있었다. 이 貝層 下底部에서 所謂 빗살 櫛文 土器, 系統에 屬하는 破片 네個를 採集하였으나 그 중 한個에는 補修孔으로 생각되는 구멍이 한군데 뚫어져 있었다. 그들 文樣은 傾斜한 짧은 直線을 옆으로 連續 그어서 構成한 線列을 上下 몇 段에 걸쳐 配列하였으나 매우 銳利한 器具를 使用해서 施文하고 있었다 이러한 文樣은 서울 近郊의 岩寺里에서 多量으로 出土한 같은 系統의 土器 破片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器型이 작은 닳인지 文樣 全體의 構成이 보다 纖弱하게 되어 있었다. 器壁의 두께도 훨씬 얇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色調는 黃褐色에 가깝고 胎質도 岩寺里것 하고는 많이 差異가 난다. B地點에서는 破片 數個를 掘出하였으나 그 중 두個는 無文이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線列의 方向을 서로 反對적으로 바꾼 금은 빗살文이 있었다. 이 곳에서는 貝層의 厚는 約二〇cm 前後로 쌓여있었고 그 上部에는 黑色壤土가 五〇—六〇cm의 두께로 덮이고 있었다. 앞서 A地點에서는 地表까지 約五〇cm의 黑色壤土사이에 一〇—二〇cm厚의 또하나의 貝殼層이 있었으나 그 部分에서는 遺物이 發見되지 않았다.

이 貝塚에 對하여서는 그 후 다시 調査할 機會를 갖지 못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면 그 후 德積群島의 蘇爺島와 昇鳳島에서 發見된 貝塚 出土의 土器와 제일 그 性質이 가깝지 않을까 한다. 京畿海岸에서는 그 以外에도 江華 앞바다의 筋島 貝塚이 有名하지만 烏耳島遺蹟은 德積群島에서 發見된 貝塚에 더 가까운 親緣關係가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畫帖 『善可法』

全 鑿 碻

十月六、七兩日에 걸쳐 東亞日報에 실린 金元龍先生의 檀園筆 『龍珠寺父母恩重經』의 趣味津津한 一文을 읽고 문득 이와 類似한 古畫帖 一冊을 數十年前에 入手한 記憶이 나서 庫裏를 뒤졌더니 多幸히 戰禍를 免한 금지한 옛 裝幀 그대로의 畫帖 한卷이 먼지 속에서 나왔다.

題하여曰 『善可法』이라 하였고, 冊앞뒤에는 墨痕淋漓하게 達筆로 아래 같은 序文이 쓰여져 있다.

御製 善可法序

自古教養必自幼時目覩耳聽者必也正道令繪士梁箕星圖繪二十編十編孝子事親五編友愛敦睦三編勸學一編敬師一編古太子知稼穡其命圖之意深也。夫二十編皆以手書其題其下以諺書懸註蓋便乎閱覽也

崑歲丁巳二月上旬前書

- | | | |
|------|------|------|
| 殿門問寢 | 三時視膳 | 仲由運米 |
| 菜子娛親 | 陸郎懷橘 | 石建滌禪 |
| 黃香扇枕 | 王祥得雀 | 王延得魚 |
| 董生孝親 | 孝親友愛 | 書忍百字 |
| 妯娌和睦 | 兄弟友愛 | 投梨共食 |
| 螢囊讀者 | 穴窓照炬 | 畫地成子 |
| 程門侍立 | 世子觀稼 | |

이 序文에 依하면 『善可法』 畫帖은 英祖大王① 自身の 編著로서 特히 少年의 教育을 爲하여 그림을 除外한 글씨는 全部 自筆로 쓰고 當時 畫員이 있던 梁箕星에게 命하여 孝道, 友愛, 敦睦, 勸學, 敬師, 古太子知稼穡等 옛적부터 傳해오고 또 世上에 널리 알려진 故事를 추려서 그림을 그리게 하였으며, 그림 위에는 各各 題目을 쓰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說

明을 써서 보기에 便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善可法』을編輯할 때에 特別히 殿門問寢이나 三時視膳같은 世子가 帝王에게 孝道하는 故事를 넣고 또 章帝王이 될 太子에게 治民의 道를 가르칠 意圖로 古太子 知稼穡같은 故事를 넣은 것을 보면 이冊은 王位에 오려고 將來 王位에 오를 莊獻世子^㉔에게 보이기 爲하여 英祖 자신이 編纂한 것이 아니었던가 推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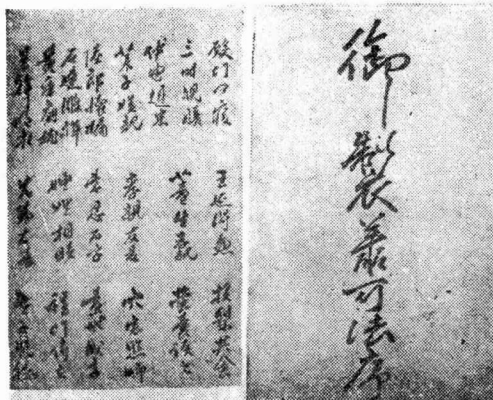
분도 權域書畫徵에 依하면,

朱義植 字道源。號南谷。羅州人。武科。官縣監。善書梅尚氣節。詠項羽詩曰 英雄運去歎天亡八載 干戈夢一場不獨江東 差父老泉臺何面拜懷 王(昭代風謠)이라고 簡單히 記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善可法』은 二十幅의 畫帖을 보면 비록 縱三五cm 橫二二cm의 작은 畫幅들이기는 하나 能熟하고 精緻한 筆致로 그려져 있는 品이 훌륭한 솜씨를 가진 畫家의 作品임에 틀림이 없으며 英祖에게 信任과 寵愛를 받던 畫員이 있었으므로 짐작 된다.

筆者는 이 『善可法』 畫帖 以外에 梁箕星의 作品으로는 拙藏 樹下仙人 八圖를 보았을 뿐인데 이 作品도 亦是 水墨畫이나 『善可法』 畫帖과는 달리 韻致있고 格調있는 自由瀟灑한 作品이다.

註 ① 朴鍾和氏藏 『孝章世子年譜』는 英祖의 遺筆中 보기도 筆跡이다. 特히 英祖의 自著自筆로 된 이 『孝章世子年譜』의 筆致나 書體는 『善可法』 序文의 筆致나 書體가 꼭 같아서 『善可法』 序文이 英祖의 自筆임을 再確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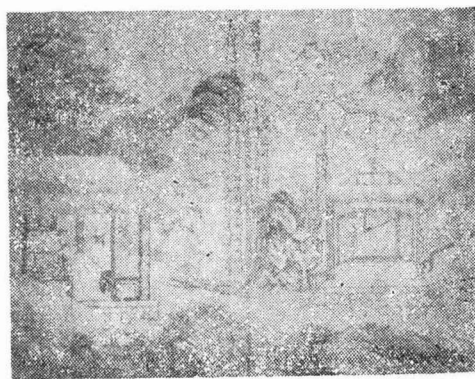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善可法』 畫帖의 그림은 純墨畫로 設彩가 없는 것을 보면 或是 이 그림을 原本으로 해서 當時 이미 板刻이 되어 出版되었을 지도 모르나 筆者의 寡聞한 탓인지 『善可法』이 上梓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일이 없으니 더우기 이 畫帖은 宮中에 備置하고 世子에게만 常時 보이기 爲한 것이 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繪士 梁箕星이라는 분은 權域書畫徵에 依하면

梁箕星 南原人。萬戶字標子。南谷朱義植外從孫。畫員。司果。善畫(畫士譜畧)이라고 簡單히 記錄과 있을 뿐이며, 그의 外從祖 朱義植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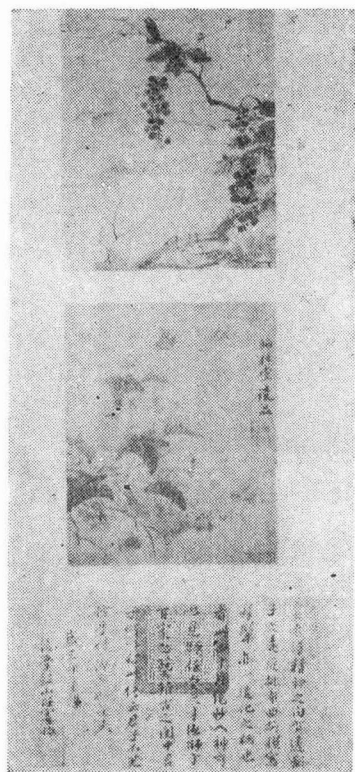


② 前記『孝章世子年譜』에 依하면 孝章世子가 英祖四年 戊申年에 죽었으므로 『善可法』을 編纂한 英祖十三年은 丁巳年이 된다. 그러므로 英祖가 『善可法』을 編纂한 것은 莊獻世子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申思任堂의 小品軸

崔 淳 雨

近者에 國立博物館이 新收한 書畫中에 申思任堂의 小品軸 하나가 있다. 元來 畫帖에서 떼어낸 것으로 보여지는 폭 一八·二cm 길이 二三cm 의 조그만 片畫 두장에 鼓山 任憲晦의 題拔 한장을 합쳐서 簇子로 表具한 것이다. 罽은 韓紙에 하나는 葡萄圖를 다른 하나는 草虫圖를 그린 것인데 女性다운 솜씨나 그 氣品이 세상에 흔히 나도는 申夫人筆이라는 것과는 種類가 다른 듯해서 소개해 둔다. 罽위의 葡萄圖에는 左下端에 平山氏申 라는 두개의 印款이 적혀있고 左上端에는 蓮白觀이라는 印識이 있는데 이것은 勿論 白蓮 池雲英 것이다.



이 그림은 水墨으로만 濃淡을 가려서 그린 포도 罽들에 날아드는 꿀벌 한마리를 配한 것으로서 그 情愛가 깊은 섬세한 분위기나 飛白을 남기며 闊達하게 그은 줄거리와 布置의 妙等 그 어느 점도 소홀함이 없다고 하겠다.

다음 그림은 오이냉쿨에 기어드는 메뚜기 한마리를 配圖한 草虫圖인데 亦是 淡墨調의 水墨畫이다. 오이냉쿨을 向해서 질어가는 메뚜기 한마리의 姿勢가 閑庭의 분위기를 잘 支配하고 있으며 오이냉쿨과 그 잎은 淡墨, 葉脈은 濃墨으로 線描하고 있다. 이 草虫圖의 右肩에는 行書로 『師任堂遺品』이라 墨書하고 그림에 審定이라는 方印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아마 趙滄江의子 梅窓 趙之耘의 鑑識印記라고 생각된다. 梅窓은 仁祖十五年(一六三七) 丁丑生으로서 申夫人(中宗七年一, 五二生)보다 百二十餘年 後輩이다. 이 款記아래로 그림 右下端에 먼저 葡萄圖에도 적힌 것과 同一한 池白蓮의 印款이 적혔고 다시 左上端에는 罽라고 보여지는 작은 方印이 적혀 있는데 이 小方印은 梅窓의 方印과 그 印朱色이 비슷해 보인다.

끝으로 任鼓山の 題拔은 唐紙로 생각되는 胡粉, 靛인 종이에 行書로서 十行에 걸쳐 墨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畫者得精神之向背透影子之遠近排布曲折模寫髣髴亦一造化之柄也看此四十片絕妙入神可以見思任堂之才德師千百家之藝雖古之闔中君子何以到此傳云君子不哭信乎婦德亦如是夫

歲己卯 重陽 後學 鼓山 任憲晦』

이 題拔의 右下端에는 枯葉形雅印 하나가 적혀 있는데 確實하게 判讀할 수 없으나 아마 鼓山 인듯하고 左下端 이름 아래에는 任印 라는 큰 方印이 적혔으며 이 拔記의 中央에는 忠翊이라는 方七, 八cm나 되는 큰 官印이 적혀 있다. 이 官印은 追後에 적힌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그 所藏由來를 나타내려고 試圖한 듯하나 이것은 論外로 할 밖에 없다. 이 拔文中에 「看此四十片 絕妙入神」이라는 句節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小品 두 점은 元來 四十幅으로 된 思任堂 小品帖에서 分散된 것임을